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제주 마을 기록 어떻게

제주 어르신들 구술자에서 기록자로

천편일률적 마을지 등 변화 생활 밀접한 자료 발굴 노력 제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 50~70년대 생활사 조사 정리 매해 주제 집중도 등 진일보

제주 문화동네에서 어르신 세대의 기억을 붙잡으려는 기록 작업이 활발하다. 그들의 지나온 생을 듣고 글쓰기에 훈련된 이들이 집필을 맡는 방식만이 아니다. 어르신들이 필자가 되어 자신의 기억을 풀어내는 곳도 있다. 이는 개인을 넘어 마을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활동과 연결된다. 도시재생의 바람을 타고 마을이 걸어온 길, 공동체가 이어온 삶의 풍경을 담아내려는 손길이 분주하다. ▶“무엇을 기록할지부터 정해야”= 마을을 기록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과거 제주도내 대부분의 마을에서 만들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 마을지 발간이 대표적이다. 하

지만 마을지 구성이 천편일률적으로 짜여지면서 해당 지역의 특색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근래 출간되는 마을지를 두고 일상에 밀접한 자료 발굴과 구술 채록이 강조되는 배경 중 하나다. 공적 자금이 꾸준히 투입되는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영향으로 최근 마을 아카이브 사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을과 밀착되어 있지 않거나 기본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해문 제주시도시재생위원은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마을별로 차별적으로 자료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며 “일정한 기준표에 의해 기록하는 일이 우선이고 그것을 쉽게 풀어내거나 포장하는 작업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했다. ▶개인 생애 넘어 시대사 펼쳐= 제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가 진행하고 있는 ‘기억으로 보는 제주생활문화’ 사업은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끈다. 향토문화연구회는 그동안 구술자로 존재했던 어르신들이 워크

숍 등 교육을 받으며 직접 기록자로 나서고 있는 단체다. 지난 11일에는 ‘기억으로 보는 제주생활문화 2’ 세미나를 열어 회원들이 쓴 1950~60년대 제주 성안 살림집, 1960~70년대 제주도 슈사인 보이, 1964년 제주도 동문동 부엌살림, 1969년 서귀포 남중학교 여중생의 한라산 등반기를 발표했다. 4편의 글은 시민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생생히 그려낸 생활사로 개인의 기록을 넘어 한 시대를 보여줬다. 특히 ‘성안’으로 불려온 제주시 원도심을 다룬 발표문은 60~70년대 제주시내의 골목골목을 복원해냈다. 지금은 사라진 다방과 음식점, 인물 등 개인이 수십년 살아낸 시간 속에 제주사가 스며있었다. 어르신 회원들이 집필을 맡은 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첫회보다 주제 선택이나 집중도 등 한걸음 더 내디딘 모습이었다. ‘한 개의 도서관’이라는 어르신 기록자들의 눈이 ‘원도심’이라는 마을까지 닿으면서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이끌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어 자료전 11일 제주칼호텔에서 개막된 '소멸 위기의 제주어 보전과 부흥 방안' 주제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대회 부대행사로 제주어 도서, 제주어 음반, 제주어 상품 등을 전시한 제주어 자료전이 열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도에 국립방언연구원 설립해야”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대회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장 제시 “국립국어원서 관장 역부족”

제주도에 국립방언연구원을 설립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립국어원장을 지낸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는 11일 ‘소멸 위기의 제주어 보전과 부흥 방안-세계 언어학자들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주학연구센터 제3회 제주학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교수는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할 절멸 위기의 제주방언’ 기조 강연에서 “절멸 위기에 있는 제주 방언의 보존은 국가적인 과제인 동

시에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그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립방언연구원의 설립 방안 마련과 동시에 국가기관의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언연구원을 ‘국립’으로 설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 소멸 속도가 빠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문 정책을 담당하는 국립국어원이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 국립국어원에서 방언을 관장하는 일은 역부족이어서 국립국어원과 별도로 국립방언연구원이 들어서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제주 지역에 방언 연구원 본원을 두고 각 도 단위에 최

소 하나 이상의 본원을 두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줄리아 살라방크 SOAS 런던대 교수는 ‘언어부흥 모델: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주제 발표에서 영국, 태국 사례 등을 들며 “언어 사용을 가정에서 먼저 안전화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무시하고 학교 교육에만 집중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며 웨일즈어 몰입교육을 받은 학생 대다수가 학교 졸업 후 웨일즈어를 일상어로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살라방크 교수는 “유창한 화자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선희기자

문화포럼 토요일문화유람

(사)제주문화포럼(원장 홍진숙)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일상'으로의

여행-토요 문화유람' 올해 마지막 행사를 이달 23일 제주시 동부지역에서 펼친다. 이번에 방문할 곳은 고길천 작가의 100년 된 집, 김택화 미술관,

동회천 화천사, 회천동 석불, 동회천 샘물, 송당리 마을길, 김용주·전영실 작가 작업실 등이다. 참가비는 1만 2000원. 064)722-6914. 전선희기자

이번주(11월 12일~11월 17일) 무대 & 미술

산지등대에 예술의 빛 반짝입니다

제주문화기획학교 7인 100여년 등대의 추억

등대지기가 사라진 산지등대에 예술의 빛이 쬐였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문화기획학교' 심화과정으로 기획된 '산지예술등대'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이번 전시엔 김해근 기획자를 멘토로 7명이 참여해 산지문화 카페, 등대 예술학교에 설치, 아카이브 등으로 예술의 옷을 입혔다. 1916년 10월 무인등대로 처음 불을 밝힌 뒤 100년 넘게 제주 바닷길을 비추은 산지등대

가 오래도록 제주인의 마음에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공연> ▶극단 자유의 '세 남자'=11월 12일 오후 7시 문예회관. 755-0904. ▶'해녀' 콘서트=11월 12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010-5560-0501. ▶홍윤정 오보에 독주회=11월 12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010-9122-6190. ▶페퍼톤스 공연=11월 13일 오후 4시 아라뮤즈홀. 754-8265. ▶극단 파노가리의 '동업'=11월 13~14일 오후 7시 문예회관. 755-0904.

▶오 퍼커션 타악기양상불 연주회=11월 14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710-7605. ▶제주대 콘체르트코어 연주회=11월 14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연주회=11월 14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28-2745. ▶투람쇼=11월 15일 오전 10시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965. ▶합합페스티벌 인 제주=11월 16일 오후 5시 문예회관. 710-7643. ▶홍지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11월 16일 오후 2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710-4243. ▶아나체펠하모닉오케스트라 내한 공연=11월 16일 오후 7시 서귀포에

술의전당. 760-3365. ▶성시경 콘서트=11월 16일 오후 7시, 17일 오후 5시 제주아트센터. 02-567-2027.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11월 17일까지 매일 오후 7시30분 미에랑소극장. 722-5254. <전시> ▶제주캘리사랑모임 회원전=11월 12일까지 한라도서관. 010-2661-2650. ▶바다, 사람, 예술 상상 프로젝트=11월 12~20일 서귀포예술의전당. 010-8721-1387. ▶국립대만사범대학 리쨌밍(李辰明) 교수 초대전=11월 13~12월 31일 동덕여대 미술관 제주분관 피움갤러리 개관 기념. 010-4699-1753.

▶남원리 해녀의 삶-제주영상등인 11월 14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백주순 판화전 '실존-사소한 생각'=11월 14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산지예술등대=11월 14일까지. 010-8850-8762. ▶김복신 개인전 '꽃'=11월 14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에콜 드 제주 -세 개의 서정=11월 14일까지 기담미술관. 733-1586. ▶오기영 개인전=11월 15일까지 돌담갤러리. 757-2171. ▶이승수 개인전=11월 15일까지 거인의정원. 010-3690-7545. ▶고용석 도예전=11월 16일까지 스페이스 예나르. 010-7479-1027. ▶국제사건교류박람회=11월 16~

21일 문예회관. 710-7633. ▶수목의 빛-문인화제주작가회 11월 16~21일 문예회관. 710-7633. ▶김이화-문예마 섬 프로젝트 네 번째 전시=11월 16~22일 클럽블루 갤러리. 800-9163. ▶제주신화 어린이 그림 공모전 입상작=11월 16~22일 문화공간 제주아트. 722-6914. ▶김지열 개인전 '시간을 담다'=11월 16~30일 거인의정원. 702-3237. ▶2019 추사에게 새로운 길을 묻다=11월 17일까지 제주추사관. 창작공간 '풍남아래굴림' 공동 기획. 710-6712. ▶박성진 개인전 '제주의 돌담과 숲'=11월 17일까지 갤러리 ICC 제주. 735-1001. 전선희기자

2019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조협회장배 체조대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도내 최정예 선수들이 참여하는 2019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조협회장배 체조대회를 개최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 11. 16(토) 10:00~15:00 **장소** 제주대학교 실내체육관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재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 회장 강창용

행사문의 | 사무장 문상임 ☎ 010-9660-2687 경기위원장 고영호 ☎ 010-9187-0623